

광주·전남 식품위생법 위반 전국 절반

99곳 중 43곳 차지...표시기준 위반 등 유형 다양 휴가철 관광객 지역 이미지 실추 관리 철저 요망

광주·전남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가 전국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름 휴가철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철저한 식품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선제적으로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점검은 휴가철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품업, 병과,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대상 전국 7천112곳 중 총 99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광주 23곳, 전남 20곳 등 43곳을 차지해 '절반' 가까운 비율을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동구 4곳, 서구 2곳, 북구 5곳, 남구 11곳, 광산구 1곳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표시기준 위반 ▲

건강진단 미 실시 ▲영업장 면적변경 미 신고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로 인한 시설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다양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 처분을 내린 뒤 6개월 이내 재점검에 나서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발 시 과태료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행정 처분은 시정 명령부터 영업정지 1개월 등이다.

광주시는 한 달을 주기로 계절별, 테마별로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테마는 명절, 개학, 어린이날, 김장철, 각종 기념일 등 다양하다.

합동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관들이 3인1조로 식당, 카페 등 식품 접객

업소를 찾아 현장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 결과 적발 업소가 전체 1/4 가까이 나온데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어려워지다보니 업소 차원에서 관리에 해이해졌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위반 업소가 많이 나온 만큼 점검을 계속 해서 하달 보면 영업자 분들도 의식하고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 등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김대민기자

전남교육청, 개방형직위 임용 발표



전남도교육청이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 감사관(3급)에 고재술(56) 고흥평 생교육관장, 홍보담당관(4급)에 김학주(50)씨를 각각 임용키로 했다고 23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고재술 감사관 임용예정자는 1990년 교육행정직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 나주공공도서관 총무부장, 보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전남교육청 노사정책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고흥평생교육관장(4급)으로 재직중이다.

김학주 홍보담당관 임용예정자는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전남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실과 홍보담당관실에 근무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북포시지역위원회 홍보특보 등을 역임했다. 두 사람은 추후 임용 결정 사유 조회 등 절차를 거쳐 9월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임채만기자



광주정신상징 '주먹밥'을 카메라에... 23일 광주 북구가 주최한 '메이썬 5·18 팸투어'에 참가한 수도권 여행 전문기자들과 관광객들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오일 광주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 등의 음식 만들기 체험을 하며 휴대카메라에 담고 있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팸투어는 북구의 5·18 사적지를 테마로 한 다크투어 코스 및 연계 관광지 소개를 통해 민주예향의 도시광주를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민기자

북구, 추석맞이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특별 방역주간 설정 등 2대 분야 10개 과제

광주 북구는 23일 "다가오는 추석에 맞아 내달 12일까지 코로나19 대응과 주민생활 관련 2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 방역주간 설정 및 생활방역 실천 안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 등이다. 또한 북구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코로나

19 콜센터를 정상 운영하며, 비상진료기관 6곳을 지정해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부터 재택치료자 관리까지 주민 안전에 빈틈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 상거래 행위 제한, 유통업체별 가격 구 홈페이지 공개, 원산지 표시 점검 등 명절성수품 구입편의도 제공하며 취약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호우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근무체계를 구축

해 만약을 대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생활콜센터 운영, 생활쓰레기 수거 대책 마련(연휴 4일 중 2일 수거), 15개소 무인민원발급기 홍보 활동도 전개된다.

추석당일 북구는 성묘객 편의를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와 영광공원 일원에서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성묘분위기를 조성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재영기자

오늘의 날씨

지역	강수확률(%)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30	목포	00:29 06:17	12:12 17:55
목포	30-20	순천	07:29 01:51	20:07 13:29
순천	60-30	여수		
여수	60-30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70 (마스크 챙기세요)
- 빨래 50 (실내 건조 좋아요)
- 세차 30 (급하지 않으면 미루세요)
- 운동 80 (준비운동은 충분해)

지역	전라(광주)	서울경(서울)	강원영동(영동)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8월 25/목	(23/30)	(22/27)	(21/28)	(21/28)	(22/30)	(25/30)
26/금	(22/29)	(21/28)	(21/28)	(20/28)	(21/30)	(24/29)
27/토	(21/28)	(20/27)	(20/27)	(19/27)	(21/29)	(24/28)

▶ 날씨안내 : 국민안전131

전남 일부 학교, 교직원·자녀학비수당 부정 지급

전남 일부 학교들이 교직원 수당과 자녀 학비 수당, 시간 외 수당 등을 부정하게 지급했다가 전남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일부 학교에 대해 감사한 결과, 전남 A고는 교육 경력 3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교원에게만 원로교사 수당(매달 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는 등 2019~2020년 교원 3명에게 교직원수당 산금 139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A고 교직원 2명은 자녀 학비가 면제됐는데도 자녀 학비보조수당 138만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이 학교 교직원 5명은 부양가족

과 세대 분리를 했음에도 부양가족수당 78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A고는 국외 출장 중인 교직원 1명에게 시간외근무수당 36만원을 부정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수학교인 B고 역시 교육 경력 3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교원에게만 원로교사 수당(매달 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는 등 2018~2021년 교원 7명에게 교직원수당 산금 248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가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직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과다지급된 수당을 회수하도록 했다.

/임채만기자

환경공단, 해수욕장 토양 무상 측정 확대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23일 "ESG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제주도·전남지역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수욕장 토양 무상 측정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국내·국제속원도 시험을 6년 연속

"만족"이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시험분석 자료의 국내·외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여름철 대표적 휴양지인 해수욕장의 토양관리 기준에 11개 항목을 추가 분석한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지역민·이용객의 건강증진과 관광객 유치 홍보 등 파급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임채만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정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불거리와 먹거리 모두 풍부한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 장서는 날 ●
매주 토요일 / 2,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장흥군
Jangheung County

문의 : 062)650-2099